

카카오·오픈AI 맞손...“공동제품 개발”

공동 간담회 전략적 제휴 선언 카카오 서비스 오픈AI 기술 적용 “맞춤형 AI 서비스 대중화 노력”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공동 제휴를 선언했다. 정신아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 간담회를 갖고 카카오톡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적용 및 공동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카카오는 최고 AI(인공 지능) 기술을 확보하며 AI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전략적 제휴를 기쁜 마음으로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챗GPT 기술들을 가나나 서비스들

포함 다양한 프로젝트에 론칭하게 된다”며 “이번 파트너십이 최신 기술 활용을 넘어 카카오의 5천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AI 서비스 대중화’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기술과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우선 카카오톡, 카나나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네이티브 컴퍼니(AI native company)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챗GPT 엔터프라이즈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그간 독자적인 초거대 언어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개발된 다양한 AI 모델을 필요에 맞게 선택해 구현하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 노선을 분명히 해 왔다.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상품 개발과 관련해선 한국 이용자를 이해하는 카키오와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오픈AI가 맞춤형 AI 서비스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올트먼은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우리는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키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카키오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글로벌 AI 기술을 선도하는 오픈AI와의 전략적 협업을 기대가 크다”며 “이번 제휴는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의 고도화는 물론, 필요한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들려는 카카오의 노력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뉴스



광주은행 첨단금융센터 첨단중앙로로 이전

WM라운지 새롭게 문 열어

광주은행이 최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은행 첨단금융센터에서 첨단금융센터 이전식을 가졌다. 이번 이전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위원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이 이전한 첨단금융센터는 고객 편의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한 첨단중앙로 신축건물에 자리잡았다. 특히 첨단금융센터 내 ‘WM(자산관리)라운지’는 PB고객에 대한 맞춤형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특화점포로 영업창구가 아닌 특

립된 공간에서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WM라운지에는 금융상담전문가인 전담 PB직원을 배치해, 고객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 및 개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금융솔루션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상품·부동산·재테크·은퇴설계·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새롭게 문을 연 첨단 WM라운지를 통해 고객의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가 되고, 지역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조현상·최태원 등 20대 그룹 CEO 경제사절단 꾸려 미국행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 상하원 의원 등 참석 ‘갈라 디너’

대한상공회의소가 최태원 회장(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민간 경제사절단은 파견한다. 경제사절단에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비롯한 2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로 꾸러질 예정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20대 그룹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경제사절단을 모집하고 있다. 참석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사절단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움직임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빌딩에서 ‘갈라 디너’도 예정됐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주요 주지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경제사절단은 민간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간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ICON,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기업 모집

광주 사업장 SW 사업자 대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20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규 과제 및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지역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시가 확보한 ‘2025년 광주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사업 지원금’을 활용에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SW 사업자이며,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을 충족한 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개 기업은 2.5억원(국·시비)을 지원받고, 오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지역 내 우수 인력 고용의 일자리 창출형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역량 기반 고도화 실증의 기업 성장형 ▲해외진출, 마케팅, 투

자유치의 혁신기술 기반 기술 사업화형으로 구성됐다. GICON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서비스 개발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SW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GICON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광주시 9대 전략사업 중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메디헬스케어, 반도체 등과 연계한 AX(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산업 기업 및 AX기반 미래산업 발굴을 통해 광주가 디지털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보해양조, 광주 취약계층에 쌀 1만포대 전달

‘함께’ 프로젝트 본격화

보해양조가 지역 농가와 취약계층 상생을 위해 광주시에 쌀 1만 포를 전달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보해의 지역사랑 프로젝트인 ‘함께’는 75년간 광주·전남과 함께 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보해양조는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첫 단계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11월 농협경제주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총 4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와 함께 성장해 온 보



해양조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농가 지원과 취약계층 나눔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대표기업인 보해양조가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나눔이 시내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중동 광의료헬스 시장 진출 두바이 전시회 공동관 운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광의료헬스 분야 기업 6개사와 함께 지난 1월 27일부터 4일간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Arab health 2025)’에 공동관을 운영했다. <사진> 국내 기업들은 100만 달러의 MOU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는 세계 3대 의료기기 전시회이자 중동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이번에는 약 180개국, 3800개 이상의 의료 및 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했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여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으며, 의료 및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진흥회 공동관에는 ㈜소프트헬스가 ‘벨라 터마 돔’, 티아이피인터내셔널(주)이 ‘닥터발리프’,



㈜비비빅스가 ‘루미니엘’을 각각 출품했다. ㈜영신메디칼은 ‘의료용 윤열기’, ㈜유엔아이유틸릭스는 ‘안저카메라’, ㈜프루진가 ‘바이나리 티슈 클리어 링 래피드’를 출품해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 기간 광의료헬스산업협동조합은 인도 뭄바이 의료유통기업 ‘LIFESHOTS’와 100만 달러 규모의 MOU 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진흥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광융합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자원공사, 보성군 노후상수도 정비 본격화

2029년까지 407억원 투입

한국수자원공사는 4일 보성군 보성읍과 조성면, 득량면을 대상으로 ‘보성군 신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성군은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총 4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노후 상수관로의 교체·개량, 정밀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 85%를 목표로 하며, 올해 우선사업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별교읍 회정급수구역을 대상으로 관로 32.9km 교체해 유수율을 기존 40.4%에서 95.1%까지 끌어올려, 연간 101만톤의 누수량 저감 및 수돗물 생산비용 11억원을 절감시키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얼굴

“지방소멸 극복할 수 있는 통계 개발에 최선”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

“통계에 기반한 지역 정책 설계를 보편화하고, 확산하는 지역통계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4일 정구현(사진) 제9대 호남지방통계청장이 광주시 나리킴 통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직무를 시작했다. 정 청장은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 1994년 통계청에 입사해 통계청 표본과장, 농어업통계과장, 가계수지통계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통계서비스정책관 등을 역임한 사회·농업분야의 통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정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데이터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등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통계를 개발하는 등 지역통계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호남지방통계청 직원 간 선배가 존경과 존중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고 배려하며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기업 인력애로센터’ 운영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3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중기청은 인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구인공고 작성,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대 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다른 사업인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 인력을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 취업까지 지원한다. 올해 10개 이상의 기업에서 청년구직자 950명을 교육시켜 600명의 취업지원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만 35세 미만)는 일자리매칭플랫폼에서 참여사업단과 사업단별 모집 규모와 직무교육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중견기업) 사업단은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1.69 (+27.74)
↑ 코스닥	719.92 (+16.12)
↑ 금리(국고채 3년)	2.584 (+0.012)
↓ 환율(USD)	1460.70 (-6.50)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